



#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리 놓기: 평화를 위한 법적 및 실천적 틀 구축

### Building Bridges for Korean Unification: Establishing Legal and Practical Frameworks for Peace

#### 1. 개요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이 2025년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HWPL이 제안하는 통일헌법 초안과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개되는 통일 캠페인의 청사진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2. 내용

2024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이며 UN 헌장 및 국제법에 위배된 행위로 규탄 받고 있다. 한반도는 오랜 분단과 대치 상태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특히,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제한되어 오면서 공동체성의 상실과 적대감 등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아픔과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영토, 민족, 이념의 분열이 국제적인 전쟁과 긴장사태를 만들고 한국인, 나아가 세계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실천은 지구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HWPL은 2016년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발표하여 평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왔다. 이 선언문은 인류 모두가 평화의 사자로서 미래 세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HWPL은 2024년 9월, 대한민국 범국민 캠페인인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를 출범하고 세대, 미래, 문화, 민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 '민족을 잇다' 활동은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확산하여 국민적인 통일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

통일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헌법 초안이 발표된다. 이 초안은 법학 전문가의 노력과 HWPL의 평화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 간 자유왕래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 활동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기념식에서는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과업 도출
- 2) 통일의 법적 기반인 통일헌법 초안 발표
- 3) 남북 교류 및 통일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 발족

또한, 한반도 통일이 전 세계 평화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 실현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